

등록 일자 : 2008.09.22 23:35

[TEAF2008]유리종을 통해 울려퍼지는 심장박동 소리 들어보세요 11. 미국작가 데이비드 파커씨 심장박동 소리



"좋은 작품이라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작품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TEAF(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2008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에 참여하는 미국 작가 데이비드 파커(David A. Parker:37)씨는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심장박동 소리를 모티브로 작업을 진행한다.

파커씨의 작품 제목은 '심장박동소리'다. 브라스밴드를 연상시키는 5개의 파이프 위에 달린 센서를 만지면 실제 심장소리가 전선이 연결된 유리종을 통해 소리를 낸다.

단 자리에 앉은 사람은 유리종을 볼 수 없다. 태화강의 흐름을 자신의 생명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태화강을 바라보도록 좌석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심장박동 소리'라는 작품으로 2008 태화강국제설치 미술제'에 참여하는 미국 작가 데이비드 파커씨.

파커씨는 "유리종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종을 바라볼 수 없도록 태화강 쪽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면서 "자신의 심장박동과 같은 흐름의 종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즐기는 것도 좋은 감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커씨는 "작품에 종을 사용한 것은 한국의 전통을 표현하는데 그만이기 때문이다"며 "생명의 흐름을 표현하면서 은은하게 울려퍼져 나가는 데도 종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부인과 살고 있는 파커씨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또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다 가라 하네'라는 김종혁 선생의 한글 글씨를 컴퓨터 모니터에 저장하고 있다.

코넬대학교에 이어 시카고미술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데이비드 파커씨는 미국, 한국, 중국,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서 50여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